

HSK 작문 말뭉치에서 학습자의 ‘經過’ 사용 오류 분석*

진환상**

— 목 차 —

1. 들어가며
2. 오류 분석 이론 및 연구 방법
 - 1) 오류 분석 이론
 - 2) ‘經過’에 관련 선행연구 검토
 - 3)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3. ‘經過’ 사용 오류 분석
 - 1) ‘經過’와 ‘經’ 간의 오용
 - 2) ‘經過’와 ‘通過’ 간의 혼용
 - 3) ‘經過’와 ‘經歷’ 간의 혼용
 - 4) ‘經過’와 기타 유의어의 산발적 오용
4. ‘經過’와 ‘通過’의 인지의미 비교
 - 1) ‘經過/通過’ 혼용 오류의 인지의미론적 접근
 - 2) ‘經過’와 ‘通過’의 인지의미적 차이
5. 나가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HSK 작문 말뭉치를 기반으로 중국어 제2언어 학습자의 ‘經過’ 사용 오류를 분석하고, 그 인지의미적 원인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經過’ 관련 오류는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비교적 일관된 사용 양상을 보이는 오류로 나타났으며, 특히 ‘經過’와 ‘通過’의 혼용이 핵심 오류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자들은 수단이나 조건을 통

* 이 논문은 2025년도 한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세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중국어전공 조교수

해 결과를 표현해야 하는 맥락에서 ‘經過’를 사용하거나, 경로와 시간의 전개를 나타내는 맥락에서 ‘通過’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Talmy(2000)의 운동 사건 틀과 Levinson(1996)의 공간 참조계 이론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經過’는 경로와 시간적 과정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부호화하는 과정 지향적 의미를 지니는 반면, ‘通過’는 수단의 매개나 문턱의 통과를 통해 목표 달성을 부각하는 결과 지향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혼용 오류가 단순한 어휘 지식 부족이 아니라 경로 개념과 수단 개념의 인지적 혼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중국어 어휘 교육에서 동사의 의미 구분과 제시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키워드: 經過, 通過, HSK 작문 말뭉치, 제2언어 습득, 인지의미, 오류 분석

1. 들어가며

중국어 제2언어 습득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어휘의 의미 차이를 충분히 구별하지 못해 다양한 오류를 산출하는데, 특히 의미가 유사한 동사의 혼용은 학습자 쓰기 표현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오류 유형이다. 그중에서도 ‘經過’와 ‘通過’는 모두 ‘어떤 경로를 거치다’는 의미를 공유하는 유의 동사로서, 중국어 학습자에게 높은 혼동 가능성을 지니는 항목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중국어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는 두 동사가 문맥에 부합하지 않게 교차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며 이는 중국어 어휘 습득 과정에서 의미 구별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HSK 작문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經過’의 전체 출현 빈도는 417회로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오류 사용은 4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 학습 과정에서 ‘經過’의 의미 특성과 사용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해당 어휘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經過’가 학습자 쓰기 표현에서 고빈도 오류 항목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經過’의 실제 사용 양상과 오류 유형을 중심으로 학습자 산출을 체계적으로 분

석하는 작업은 중국어 어휘 사용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언어 사용의 네 가지 기본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가운데 쓰기 능력은 학습자의 언어 지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핵심 영역으로 다른 언어 기능의 발달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숙련도를 평가함에 있어 작문에서 드러나는 표현의 정확성과 규범성은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실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작문 산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언어적 오류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오류는 의미 전달의 정확성과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학습자의 쓰기 오류에 대한 분석은 제2언어 쓰기 능력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쓰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학습자의 작문에서는 문장 간 결속과 의미적 연관성의 문제(何立榮, 1999), 어휘, 문법, 화용, 담화 차원의 다양한 오류 유형(辛平, 2001) 등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자 오류가 단순한 언어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목표 언어 체계에 대한 인식과 습득 과정이 반영된 결과임을 보여주며 오류 분석이 제2언어 쓰기 교육의 교수 전략 설계와 담화 중심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증적 토대를 제공함을 시사한다.

'經過'와 '通過'의 혼용 오류는 이러한 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학습자들은 실제 쓰기 표현에서 두 동사의 의미적 및 구조적 차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문맥상 부적절한 표현을 산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他經過考試獲得證書*"와 같은 문장은 중국어 규범 표현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경우 '通過'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함께 학습자들은 '經過'를 사용할 때 문장 내 위치, 구조적 결합 방식, 목적어 선택 등에서도 오류를 보이는데, 이는 표현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학습자들이 '經過'의 의미 구조와 사용 제약을 충분히 인지하고 내면화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HSK 작문 말뭉치를 기반으로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經過'

의 오류 사례를 수집하고 오류 분석 이론에 따라 그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Talmy(2000)의 운동 사건 틀과 Levinson(1996)의 공간 참조계 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적용하여 ‘經過’와 ‘通過’의 인지의미적 차이를 고찰하고 중국어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용 오류의 인지적 기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經過’ 사용 오류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제2언어로서 중국어 어휘 교육에서 유의 동사의 의미 구분과 제시 방식에 관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국어 국제 교육 및 자동 오류 교정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2. 오류 분석 이론 및 연구 방법

1) 오류 분석 이론

오류 분석은 제2언어 습득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방법 중 하나로 학습자가 산출한 언어 오류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언어 습득의 양상과 규칙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와 학습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Corder(1967)는 학습자의 오류가 언어 학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현재 언어 능력과 중간언어 체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지적하였다. 즉 오류는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학습자의 언어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관찰 창으로 간주된다.

Corder(1974)에 따르면, 오류 분석은 학습자의 언어 학습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오류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아직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언어 요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언어 학습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언어적 배경을 지닌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오류 분석은 제2

언어 습득의 보편적 특성을 밝히는 데에도 기여한다.

Brown(1987)은 언어 학습이 다른 인간 학습 과정과 마찬가지로 오류 발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과정임을 지적하며 제2언어 습득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Brown(2007)은 오류(error)와 실수(mistake)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오류는 학습자가 목표어의 규칙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학습자 스스로 수정하기 어려운 반면, 실수는 이미 습득한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며 비교적 쉽게 수정 가능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구분은 학습자의 언어 발달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Ellis(1994)는 오류 분석 이론을 체계화하여 다섯 단계의 분석 절차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자의 구어 또는 문어 산출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이는 연구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단계이다. 둘째, 오류 식별 단계에서는 목표어 규범에서 벗어난 언어 사용을 판별하여 문법적·의미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선별한다. 셋째, 오류 분류 단계에서는 확인된 오류를 어휘 오류, 문법 오류, 통사 오류, 화용 오류 등으로 체계화한다. 넷째, 오류 설명 단계에서는 모국어 전이, 과잉 일반화, 교수 방식 등의 인지적 요인을 중심으로 오류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오류 평가 단계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교수와 학습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도출한다.

한편 Brown(2000)은 오류 분석이 학습자의 언어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2언어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핵심 도구임을 강조하였다. 학습자의 대표적인 오류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교사는 보다 목표 지향적인 피드백과 교수 전략을 설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해 James(1998)는 오류 분석의 학문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오류 분석이 학습자의 언어 발달을 결과 중심으로 파악하는 데 머물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오류 분석을 중간언어 이론이나 발달 순서 연

구와 결합하여 제2언어 습득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중국어 교육 연구에서도 오류 분석은 어휘, 문법, 통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특히 어휘 오류는 문장 전체의 의미 해석과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간주된다. 侯民吉(2011)는 오류 분석이 대조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습자의 오류를 언어 습득 과정을 이해하는 핵심 자료로 재인식하게 했다는 점에서 제2언어 습득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유의어 사용 오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인 편이며, 중국어에서 ‘經過’와 ‘通過’의 혼용 오류 역시 학습자 작문에서 빈번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 기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오류 분석 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HSK 작문 말뭉치에 나타난 학습자의 ‘經過’ 사용 오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유의 동사의 혼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중국어 어휘 교육에서 의미 구분과 제시 방식에 관한 실증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經過’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經過’는 본래 동사로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사용되었으며 그 초기 용례는 남북조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馬貝加, 1999). 이와 같은 구조에서 ‘經過’의 품사적 성격을 둘러싸고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이를 동사로 간주한 반면(呂叔湘, 1981), 다른 연구에서는 전치사로 파악하였다(王自強, 1984; 俞士泣, 1998). 이러한 논의는 주로 ‘經過’의 품사 판정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었다.

《現代漢語800詞》(1980)는 ‘經過’를 동사로 규정하고 그 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어떤 장소를 통과함을 나타내는 용법, 둘째,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了’를 수반할 수 있으며 시간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

는 경우, 셋째, 활동이나 사건을 경험함을 나타내는 용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적 정리 이후 '經過'를 중심으로 한 심층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屈哨兵(2004)은 '經過+VP' 구조의 피동적 성격과 화용적 잠재력에 주목하여 해당 구조가 피동 의미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문장 전체에 뚜렷한 피동적 성향을 부여한다는 점을 밝혔다. 曹起(2007)는 문법 기능의 관점에서 '經過'를 동사로 분류하는 것이 중국어의 실제 사용 양상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반면, 方清明(2008)은 '經過'가 전치사적 용법을 가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經過'와 '通過'의 의미 비교를 다룬 연구로는 劉曉曦·任海波(2008)가 두 어휘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 및 상호 대체 조건을 분석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두 어휘의 사용 조건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니지만, 분석 대상이 중국어 모어 화자에 국한되어 있어 제2언어 학습자의 오류 양상은 다루지 않았다. 鄭超(2008) 역시 '通過'와 '經過'가 모두 어떤 사람이나 사물, 활동을 매개로 목적을 달성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적으로 매우 근접하다고 지적하며, 중국어 본체 관점에서 두 어휘의 의미 특성, 통사적 결합, 사용상의 차이를 논의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經'과 '經過'의 차이는 문어와 구어의 차이로 설명되어 왔으며, 관련 역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經'은 '經過'보다 이른 시기에 등장하여 보다 문어적이고 격식적인 성격을 지닌 어휘로 평가된다(黎運漢, 2000). 이후 趙春利·石定栩(2015)는 홍콩과 마카오 지역 중국어와 표준 중국어의 '經'자 구문을 비교하여 언어 접촉과 문법화의 영향을 논의하였으나 제2언어 습득이나 학습자 오류 분석으로 논의를 확장하지는 않았다. 陶文娟(2011)은 문법화 관점에서 '經過'가 동사에서 명사, 나아가 준전치사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李冰冰(2014)은 '通過'와 '經過'의 전치사적 용법을 비교하고 외국인 학습자의 습득 현황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역시 학습자의 오용 유형, 발생 원인, 영향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는 주로 중국어 모어 화자의 언어 사용 규칙과 어휘의 통사 및 의

미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으며, 제2언어 학습자가 ‘經過’와 ‘通過’를 어떠한 인지적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오류를 반복적으로 산출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류 분석 이론이 중국어 교육 연구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經過’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오류 유형 분류와 인지의미적 분석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언어 자료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經過’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오류 특성과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베이징어언대학에서 구축한 HSK 작문 말뭉치에서 수집하였다. 해당 말뭉치는 서로 다른 모어 배경을 지닌 중국어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폭넓게 수록하고 있어 학습자의 실제 쓰기 표현에서 나타나는 언어 양상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서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 말뭉치 가운데 학습자 작문을 선별하고, ‘經過’가 포함된 문장만을 연구 대상으로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선별 과정에서는 분석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經過’가 실제로 사용된 문장만을 수집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장 구조가 지나치게 불완전하거나 맥락 정보의 부족으로 의미 해석이 어려운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특정 숙련도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 작문을 포함함으로써, 언어 수준에 따른 ‘經過’ 사용 오류의 양상을 폭넓게 관찰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말뭉치 기반 분석을 채택하였다. HSK 작문 말뭉치에 나타난 학습자의 ‘經過’ 사용 사례를 대상으로 오류 유형을 분류하고,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오류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표적인 오류 문장을 중심으로 문맥과 통사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오류 발생의 기제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수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經過' 사용 오류 분석

본 연구는 HSK 작문 말뭉치에 나타난 학습자의 '經過' 사용 오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오류는 주로 유의어 혼용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經過'와 '通過'의 혼용이 가장 두드러진 핵심 오류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經歷', '度過', '有過', '過去', '受', '使用' 등과의 혼용 빈도가 낮고 분포가 분산되어 있어 부차적인 오류 유형으로 나타났다.

1) '經過'와 '經' 간의 오용

HSK 작문 말뭉치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經'과 '經過'의 기능과 결합 조건을 구분하지 못해 두 어휘를 부적절하게 교체 사용하거나 잘못 결합하는 오류를 보인다. 이러한 오류는 동사-목적어 간 의미 관계를 약화시키며 문장의 해석을 불분명하게 만든다. 예문 (1)~(3)은 이러한 오용을 보여주는 예이다.

- (1)我經過{經*}這件事情覺得“安樂死”也是一種尊重病人的人權的選擇。
- (2)這種“代溝”是不可忽視的，所以我們將會經過{經*}多年的努力，達到年輕人和年齡比較高的人一起滿足的目的。
- (3)兩人從來沒見個面，突然相遇，慢慢了解，天長日久，經過{經*}一段長時間，雙方很愛對方，這時就是進婚姻的美好時間。

예문 (1)~(3)은 모두 학습자가 '經'과 '經過'의 기능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전형적인 유의어 혼용 오류에 해당한다. 먼저 예문 (1)에서 학습자는 사건 명사 '這件事情'과 결합할 동사로 '經'을 사용하였으나, 해당 맥락에서는 일정한 과정이나 경로를 거친 경험을 나타내는 '經過'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經'은 주로 서면어에서 전치적 기능이나 간결한 연결 성분으로 사용되며 개별 사건을 목적어로 직접 도입하는 동사적 용법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예문 (2)와 (3)에서도 유사한 오류 양상이 관찰된다. '多年的努力', '一段

長時間'과 같이 시간적 과정이나 지속성을 나타내는 성분은 '經過'와 결합할 때 자연스러운 의미 관계를 형성하지만, 학습자는 이를 '經'으로 대체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사와 목적어 간의 의미 결합을 약화시킨다. 문장에서 '經'을 사용할 경우 과정성이나 경과의 의미가 충분히 표상되지 못해 표현의 규범성이 저하된다. 이러한 오류는 '經'과 '經過'가 모두 '경로와 과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어휘의 통사적 기능과 결합 범위의 차이를 학습자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이는 학습자가 '經'을 '經過'의 축약형이나 자유 대체 가능 항목으로 오인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유의어 간 기능 분화에 대한 명시적 지도 필요성을 시사한다.

2) '經過'와 '通過' 간의 혼용

두 번째 오류 유형은 '經過'와 '通過'의 혼용으로 학습자가 수단, 방법 및 매개를 나타내기 위해 '通過'를 사용해야 하는 맥락에서 '經過'를 오용하거나, 반대로 경험, 과정 및 시간의 경과를 표현해야 하는 맥락에서 '通過'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유형은 말뭉치 내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고 분포가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비교적 자주 나타난 오용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서 '經過' 관련 오류 가운데 가장 체계적인 유형으로 평가된다. 예문 (4)~(12)는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다.

- (4)我到中國來一方面學習中文, 另一方面通過{經過*}工作了解中國的情況。
- (5)通過{經過*}這次旅游, 我認識到中國沿海地區跟內陸地區還有很大的差別。
- (6)比如說, 坐飛機去伊朗的時候, 認識在貿易公司上班的人, 通過{經過*}他, 我知道了很多的日本的企業在海外做買賣。
- (7)通過{經過*}以上的經歷, 我還是認為安樂死是可取的。
- (8)妻子通過{經過*}“安樂死”解脫了痛苦, 是她選擇了離開人世。
- (9)我覺得通過{經過*}這樣的做法, 他們之間會越來越近。

- (10)所有的韓國父母都有比較相同的看法，他們小時候不能實現的願望，
通過{經過*}他們的子女來要實現。
- (11)我通過{經過*}這個報告可以意識到吸烟除了對自己以外，對第三者的
健康也有巨大的影響。
- (12)当年的流行歌曲是通過{經過*}收音机和唱片傳播，但現在有更多的媒
体給我們傳播流行歌曲。

HSK 작문 말뭉치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방식, 수단 및 매개를 나타내는 맥락에서 '經過'를 오용하는 경향을 빈번하게 보였다. '通過'를 사용해야 하는 위치에 '經過'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관찰된다. (4)~(12) 예문에서 학습자들은 '어떤 방식이나 매개를 통해 인식을 얻거나 결과를 달성하고 목적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는데, 예를 들어 '업무를 통해 중국의 상황을 이해함', '여행을 통해 인식을 획득함', '특정 인물이나 행위를 매개로 결과를 도출함'과 같은 의미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명사들('업무(工作)', '여행(旅游)', '경험(經歷)', '방법(做法)', '보고서(報告)' 등)은 모두 결과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또는 매개로 기능하며 주체가 이동하거나 겪는 경로 또는 시간적 과정을 나타내는 요소는 아니다.

'通過'는 목표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수단 및 매개를 도입하는 기능을 가지며, 결과의 도달을 중심 의미로 한다. 반면, '經過'는 주체가 공간이나 시간 속에서 겪는 경로, 과정 및 경험을 나타내는 동사로서, 방식이나 매개를 도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맥락에서 '經過'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어의 의미적 결합 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通過'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오류는 유의어 혼용 오류에 해당하며, 학습자가 '經過'와 '通過'의 의미 기능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經過'가 모든 과정성 사건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사로 과도하게 일반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예문 (13)~(20)에서는 이와 반대로, 학습자들이 경험, 과정 및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기 위해 '經過'를 사용해야 하는 맥락에서 '通過'를 선택한 사례가 관찰된다.

- (13)因爲他高中的時候，他是個籃球運動員，他經過(通過*)了三年的籃球鍛煉，最終獲得了非常好的成績。
- (14)我們做某件事都一樣，沒有經過(通過*)苦不能得到真正的樂。
- (15)如果本人認真選擇安樂死的話，提早進行很多準備，經過(通過*)医者、律師、家里人的同意等等。
- (16)他們經過(通過*)了戰爭，戰爭以後，吃的、穿的東西很少，應該要節約，可是我們的時代有很大的變化，我們不僅沒不經過(通過*)戰爭，而且隨着社會的發展，我們的生活水平提高了，吃的，穿的東西也很丰富了。
- (17)經過(通過*)再三思考，答案是“不知道”。
- (18)這樣以來，我想高收入也就是因爲經過(通過*)痛苦。
- (19)要得到第一名，要得到高收入是應該經過(通過*)痛苦的。
- (20)那麼總而言之，收到高收入的最基本的原因就是運動員不得不經過(通過*)痛苦。

예문 (13)~(20)에서 학습자들은 주체가 일정한 시간의 흐름이나 사건 전개 속에서 겪는 단계나 과정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3년간의 농구 훈련을 겪음’, ‘고통을 경험함’, ‘전쟁을 겪음’, ‘여러 차례 숙고함’과 같은 의미에 해당한다. 이들 명사는 모두 주체가 직접 경험하는 과정적 사건을 가리키며 시간의 경과나 경험의 축적을 강조하는 기능을 지닌다. 그러나 중국어 규범에 따르면, 이러한 맥락에서는 사건의 전개와 경과를 나타내는 ‘經過’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결과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문턱을 도입하는 ‘通過’를 사용할 경우 의미 초점이 결과나 방식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예문 (13)~(20)에 나타난 ‘通過’의 사용은 중국어 규범에 부합하지 않으며 ‘經過’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經過’와 ‘經歷’ 간의 혼용

세 번째 유형은 ‘經過’와 ‘經歷’의 혼용으로 학습자가 개인의 직접적 경험, 생활 속 체험, 주관적 감정이나 인식을 표현해야 하는 맥락에서 ‘經歷’을 사용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經過'로 대체하는 양상을 보인다.

- (21)直到現在, 我經歷(經過*)了很多的挫折。
- (22)雖然那些地區的某些地方有点落后、交通不方便, 我們經歷(經過*)的辛苦也不少, 但是總得來說, 在那里體驗過的一切都是美好的回憶。
- (23)這一段時間里我經歷(經過*)了好几件事情, 我才体会到自己的父母多么重要, 多么辛苦。
- (24)我也不例外, 跟別人一樣, 經歷(經過*)了不少事情, 可是每件事情并不一定會平安无事地的過去, 總會有障碍。
- (25)我想產生代溝問題的根本原因是父母跟子女之間生活的年代是不同的, 所以各自經歷(經過*)的生活也不一樣, 当然父母和子女的想法不一樣。
- (26)如果長輩不了解晚輩的情況下, 根据自己經歷(經過*)的事情來批評他, 晚輩不容易接受長輩的話。
- (27)可能每一個人都會經歷(經過*)"代溝"的問題吧。
- (28)首先, 年輕人要理解長輩們所經歷(經過*)的時代, 應該尊重他們, 細听他們的心里話, 讓長輩們逐步地接触新事物, 讓他們了解并跟上這個時代。
- (29)大部分的人們不只是听過這個問題, 而是經歷(經過*)的。
- (30)《茅盾傳》記述了茅盾的一生, 從少年、青年、中年到晚年的學習、寫作及報國的經歷(經過*)。

예문 (21)~(30)에서 학습자들은 개인이 생활 과정에서 직접 맞닥뜨리거나 체험한 사건, 상태 또는 단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는데, 예를 들어 '좌절(挫折)', '고단함(辛苦)', '사건(事情)', '생활(生活)', '세대 격차 문제(代溝)'와 같은 의미가 이에 해당한다. 현대 중국어 규범에 따르면, '經歷'은 주체가 특정 사건이나 상황을 직접 겪는 경험성을 중심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반면, '經過'를 사건이 시간이나 공간 속에서 전개되는 과정이나 경로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어휘로, 주체의 체험성을 핵심 의미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經過'를 사용할 경우 개인적 경험의 중심성이 약화되어 표현이 중국어의 통상적 용법과 어긋나게 된다. 이에 따라 예문 (21)~(30)의 해당 표현은 모두 '經歷'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유형의 오류는 '經歷'과 '經過'의 의미 기능

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유의어 혼용 오류로 볼 수 있다.

4) ‘經過’와 기타 유의어의 산발적 오용

네 번째 유형은 ‘經過’와 기타 유의어 간의 산발적인 혼용으로, ‘度過’, ‘過去’, ‘有過’, ‘受’, ‘使用’, ‘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유형의 오류는 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오용의 방향 또한 일정하지 않으며 분산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 (31)也許有過{經過*}這樣的經驗的人也不少。
 (32)很快過去{經過*}了。
 (33)現在的五十歲以下遠東亞洲人并未經過{受*}戰爭環境或國內混亂的時期。
 (34)都不想吃使用{經過*}過量的化肥和農藥的農作物。
 (35)所以我覺得經過{用*}人們的共同努力，這樣的問題會解決的。
 (36)在他們度過{經過*}的歲月里，酸的、苦的什麼味道都有，但他們還是互相信任、互相依賴，堅持走到現在。

예문 (31)~(3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오류는 특정 어휘와 ‘經過’ 사이에 안정적인 대체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학습자가 동사 선택 과정에서 사건의 의미 유형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범주의 오류는 앞선 ‘經過-通過’ 혼용과 달리 체계적인 의미 대응의 문제라기보다, 다양한 의미 기능을 지닌 동사들을 포괄적으로 ‘經過’로 일반화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의미 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예문들은 주로 네 가지 유형의 맥락으로 구분된다. 첫째,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맥락으로, ‘有過這樣的經驗’과 같이 ‘有過’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이다. 둘째, 시간의 소멸이나 단계의 종료를 나타내는 맥락으로, ‘很快過去了’ 또는 ‘度過的歲月’과 같이 ‘過去’나 ‘度過’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이다. 셋째, 재료나 수단의 사용을 나타내는 맥락으로, ‘使用過量的化肥和農藥’과 같이 ‘使用’ 또는 ‘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이다. 넷째, 특정 역사적 시기나 환경을 겪는 맥

락으로 '戰爭环境或國內混亂的時期'를 표현할 때에는 '受'가 아니라 '經過'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오류는 학습자가 동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명사의 의미 유형(경험, 시간, 재료, 과정)에 따라 적절한 동사를 대응시키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經過'를 모든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결과 달성의 전제 조건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일반 동사로 과도하게 확장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만 이 유형의 오류는 출현 빈도가 비교적 낮고 일정하지 않으며 체계적인 오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한편, 학습자의 '經過' 사용 오류는 유의어 혼용에 그치지 않고 통사적 결합 차원에서도 부차적으로 드러난다. 일부 사례에서는 '經過'를 문두나 고정된 부사어 구조 내부에 삽입하거나 이미 완결된 시간 또는 과정 표현과 중첩하여 사용함으로써 문장 구조의 자연성을 저해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통사적 결합 오류는 독립적인 오류 유형이라기보다 학습자가 '經過'를 시간이나 과정이 수반되는 모든 맥락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 의미로 과도하게 일반화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HSK 작문 말뭉치에서 확인된 예문 (37)~(39)는 이러한 통사적 위치 오배치 오류를 보여준다.

- (37) 隨着時間的流失{經過*}, 這五个和尚都覺得要水的心情不是輕松的, 而是很沉重的。
 (38) 人隨着時間的流逝{經過*}都得離開年青的時代。
 (39){經過*}我耐心閱讀了所給的短文之后, 腦海中不覺浮現了很多想法。

예문 (37)과 (38)에서는 '隨着時間的流失/流逝'와 같이 내부 결속성이 강한 고정된 부사어 구조 안에 '經過'를 삽입함으로써 부사어 구조의 통사적 경계를 침범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經過'를 시간 과정 의미를 보충하는 범용적 의미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오류로 볼 수 있다. 한편 예문 (39)에서는 '經過'가 문두에 배치되어 주절을 직접 도입하는 것처럼 사용되었으나 현대 중국어에서 '經過'는 이러한 통사적 기능을 갖지 않으므로 삭제하거나 '經過……

之后'와 같은 완결된 구조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여러 오류 유형 가운데에서도 '經過'와 '通過' 간의 혼용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어휘 선택 오류와 통사적 결합 오류를 동시에 수반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經過' 사용 오류 중 가장 핵심적인 유형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결합 규칙이나 문법 제약만으로는 해당 오류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인지의미적 관점에서 '經過'와 '通過'를 대비하여 두 어휘가 사건과 과정을 표상하는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학습자 혼용 오류의 인지적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4. '經過'와 '通過'의 인지의미 비교

1) '經過/通過' 혼용 오류의 인지의미론적 접근

(1)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본 '經過/通過' 혼용 오류

중국어 습득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經過'를 '通過'로 대체하거나, 반대로 '通過'가 사용되어야 할 맥락에서 '經過'를 오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經過'를 수단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잘못 사용하는 사례가 두드러지는데, 의미적 관점에서 볼 때 '經過'는 주로 공간과 시간 또는 과정의 경과와 경험을 나타내는 반면, '通過'는 수단과 방식 또는 목표 달성의 경로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다수의 맥락에서 '經過'가 아니라 '通過'를 사용하는 것이 규범에 부합한다. 작문 말뭉치 분석에서도 이러한 혼용 오류가 관찰된다.

선행연구에서는 '通過'와 '經過'가 일부 전치사적 용법에서 의미적으로 인접한 범주에 속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石毓智(1995)는 의미 범주에 근거하여 '通過'와 '經過'를 모두 '방식을 도입하는 전치사'로 분류하고, 특히 '通

過'가 도구를 도입하는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侯學超(1998) 역시 두 어휘의 전치사적 용법을 함께 기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두 어휘로 구성된 전치사구는 모두 '~에 의거하여, ~을 통해'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어, 특정 맥락에서는 상호 대체가 가능하다.

《현대중국어사전(제7판)》(2016: 685) 역시 '通過'와 '經過'의 일부 용법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반영하고 있다. 해당 사전은 '通過'를 '사람이나 사물을 매개나 수단으로 삼아 어떤 목적에 도달함'으로, '經過'를 '장소, 시간 및 행위 등을 통과함'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두 어휘의 의미 영역이 일정 부분 겹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의 중첩성은 두 어휘 간의 구분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해, 학습자가 실제 언어 사용 과정에서 의미적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혼용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사전적 설명만으로는 '經過'와 '通過'의 기능적 및 개념적 차이가 충분히 부각되지 않으며 학습자의 사용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HSK 작문 말뭉치에 대한 분석 결과, '通過'의 총 출현 빈도는 1,217회로 이중 오류 사례는 93회(오류율 약 7.64%)였던 반면, '經過'의 오류율은 약 11.5%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두 어휘 모두 습득 난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학습자들이 '경로와 과정'과 '방식과 수단'을 구분해야 하는 맥락에서 '經過'를 사용할 때 더 큰 인지적 부담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經過'와 '通過'의 혼용 오류를 보다 근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인지의미론적 관점을 도입하고자 한다. 인지의미론은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 활동과 세계 인식 방식을 반영하는 체계로 본다. 즉, 언어 구조는 인간이 사건을 개념화하고 경험을 조직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어휘 및 구문 선택 역시 이러한 인지적 패턴의 영향을 받는다(Lakoff & Johnson, 1980).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본 절에서는 Talmy(2000)의 운동 사건 틀과 Levinson(1996)의 공간 참조계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經過'와 '通過'의 인지의미적 차이와 혼용 오류의 발생 기제를 사건 개념화와 참조 방식의 차이라는 인지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Talmy의 운동 사건 틀과 Levinson의 공간 참조계

Talmy(1985, 2000)가 제시한 운동 사건 틀(Motion Event Framework)은 언어에서 경로(path)와 방식(manner)이 어떻게 개념화되고 표현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핵심적인 인지의미론적 도구를 제공한다. Talmy에 따르면, 하나의 기본적인 운동 사건은 초점(Figure)이 배경(Ground)을 기준으로 이동하거나 위치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는 운동 사건의 개념 구조에서 작용하는 여섯 가지 인지 구성 요소로 초점, 배경, 경로(Path), 운동(Motion), 방식(Manner), 원인(Cause)을 제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초점, 배경, 경로, 운동은 핵심 사건 성분에 해당하고, 방식과 원인은 부차적 사건 성분(Co-event)에 속한다. 초점은 이동 주체로서 기준점에 대해 이동하거나 위치가 변화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며, 배경은 초점의 이동을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기능하는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장소 명사나 처소 표현으로 실현된다. 운동은 이동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고, 경로는 초점이 배경에 대해 이동하면서 거치는 공간적 및 시간적 궤적이나 방향을 나타낸다. 한편, 방식과 원인은 주사건을 유발하거나 수반하는 외적 성분으로, 특히 방식은 사건이나 이동이 어떠한 수단·방법·실현 양식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낸다.

Talmy(2000)는 나아가 언어 간 비교를 통해, 경로와 방식이 운동 사건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부호화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언어를 동사 중심 언어(verb-framed languages)와 위성 중심 언어(satellite-framed languages)로 구분하였다. 전자에 속하는 언어(예: 스페인어, 프랑스어)는 동사 자체에 경로 정보를 부호화하고, 방식 정보는 부가 성분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후자에 속하는 언어(예: 영어, 독일어, 그리고 중국어)는 동사 외의 부가 성분을 통해 경로를 표현함으로써 경로와 방식의 조합 가능성을 보다 유연하게 확장한다. 중국어는 후자에 속하는 언어로, 경로 정보가 전치사나 보어와 같은 부가 성분을 통해 실현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經過’는 주체가 공간이나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

동·경과하는 경로 성분을 중심으로 사건을 개념화하는 반면, '通過'는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수단 또는 매개를 부각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어휘는 표면적으로 유사한 전치사적 용법을 지니지만, 인지적 차원에서 활성화되는 사건 구조는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Talmy의 틀은 사건 내부의 의미 구성 방식에 초점을 두는 반면, 화자가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준점을 설정하는가의 문제까지 충분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Levinson(1996)의 공간 참조계 이론(Frames of Reference)을 추가로 도입한다. Levinson(1996)이 제시한 공간 참조계 이론은 인간이 공간 관계와 사건 구조를 기술할 때 의존하는 기본적인 참조 방식을 인지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언어는 객관적 공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참조계를 통해 공간 관계를 주관적으로 구성하며, 참조계의 선택에 따라 화자가 사건의 초점, 경로 구조, 결과 지향성을 어떻게 부호화하는지가 달라진다.

Levinson(1996)은 공간 참조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자기 중심 참조계(egocentric/relative frame of reference)는 화자나 사건의 주체를 인지적 기준점으로 삼아, 주체의 시점, 방향, 시간적 진행을 바탕으로 공간 관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경로나 사건 전개 과정에서의 주관적 위치 설정을 강조한다. 둘째, 객체 중심 참조계(object-centered/intrinsic frame of reference)는 외부의 특정 객체나 기준 대상을 중심으로, 그 객체가 지닌 고유한 구조적 특성에 따라 주체와의 공간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건 구성에서 객체의 조직적 역할을 부각한다. 셋째, 지리적 참조계(geocentric/absolute frame of reference)는 절대적 방향이나 안정적인 환경 좌표를 기준으로 공간 관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시점과는 무관하게 작동한다.

이 가운데 '經過'와 '通過'의 대비에는 자기중심 참조계와 객체 중심 참조계의 차이가 나타난다. '經過'는 주체의 시점을 기준으로 경로나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사건을 연속적으로 파악하는 표현으로 자기중심 참조계와 결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通過'는 특정 대상이나 조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조직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객체 중심 참조계와 더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참조 방식의 차이는 두 어휘가 동일한 맥락에서 혼용되는 인지적 배경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상의 인지의미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언어자료를 토대로 ‘經過’와 ‘通過’가 서로 다른 참조계 하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혼용 양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經過’와 ‘通過’의 인지의미적 차이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經過’와 ‘通過’의 혼용 오류는 단순한 어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경로 중심으로 인식할 것인지, 수단과 방식 중심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인지적 구분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Talmy의 경로-방식 구분 이론과 Levinson의 공간 참조계 이론을 토대로 두 표현이 사건을 조직하는 방식의 차이를 대비적으로 고찰하고, 혼용 현상을 사건 구성과 참조 관점에 따른 인지적 선택의 문제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1) ‘經過’의 핵심 인지의미적 특성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볼 때, ‘經過’는 단순히 ‘경험하다’나 ‘발생하다’를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표현이 아니라 명확한 인지적 지향성을 지닌 과정 의미이다. 그 핵심 의미는 경로와 시간적 과정이라는 두 차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체가 공간, 시간, 사건의 전개 속에서 일정한 궤적을 따라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 즉, ‘經過’는 사건의 전개와 지속, 경과 그 자체를 의미의 중심에 두며, 결과나 목표의 달성 여부는 전면에서 부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지적 특성은 ‘經過’가 의미 선택과 통사적 결합에서 비교적 강한 제약을 지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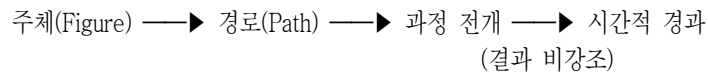
이와 같은 의미 특성은 HSK 작문 말뭉치에 나타난 학습자 오류에서 특히 분명하게 확인된다. 앞장 예 (4)-(12)에서 보듯이, 학습자들은 본래 '通過'를 사용하여 방식, 매개 또는 조건을 도입해야 할 맥락에서 일관되게 '經過'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通過(經過*)工作了解中國的情況', '通過(經過*)這次旅游, 我認識到……', '通過(經過*)這個報告可以意識到……' 등의 표현에서 '工作', '旅游', '報告'는 인식 결과를 산출하는 수단으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학습자의 개념 구성에서는 주체가 거쳐 온 과정적 경로로 재구성된다.

Talmy(2000)의 운동 사건 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오류는 사건 구조 내에서 경로와 방식이라는 의미 성분이 체계적으로 오배치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본래 수단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성분이 경로 요소로 잘못 매핑됨으로써, '결과에 이르는 방식'이 '주체가 거쳐 간 과정'으로 개념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양상에서 '經過'는 점차 공간적 경로나 시간적 이력이라는 본래 의미를 넘어, 범용적인 과정 의미로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 지향성은 시간과 사건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앞서 제시한 예문 '通過(經過*)以上的經歷, 我還是認為……'에서 보듯이 학습자는 '經歷' 전체를 '經過'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과정 단위로 인식하고 이를 판단 형성의 근거가 아닌 경과 과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經過' 사용 시 학습자가 사건의 연속성과 이력성을 강조하는 반면, 결과를 산출하는 조건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경향을 지님을 보여준다.

공간 참조계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용 양상은 Levinson(1996)이 제시한 자기중심 참조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학습자는 사건을 기술할 때 주체의 체험 경로를 인지의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사건을 연속적인 경로로 조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工作', '旅游', '報告'와 같은 요소는 결과를 산출하는 매개나 문턱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주체가 거쳐 온 경험적 과정의 일부로 재해석된다. 이러한 참조 방식 하에서 '經過'는 주관적 경험의 연속을 표시하는 과정 의미로 기능하게 되며, 결과 달성이나 수단을 부각하는 방식 표현에는 부적합해진다.

HSK 작문 말뭉치에 나타난 ‘經過’의 오용은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학습자가 ‘經過’를 주체 중심의 연속적 경로와 과정 의미로 개념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 틀이 방식, 매개 및 문턱을 요구하는 맥락으로 확장될 경우, 사건의 인지적 초점이 경로로 이동하면서 체계적인 혼용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르면 ‘經過’의 핵심 인지의미는 주체를 기준으로 공간적 경로나 시간적 과정을 연속적으로 부호화하는 과정 지향적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식 1] ‘經過’의 인지의미 구조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經過’는 주체를 기준으로 공간적 경로나 시간적 과정을 연속적으로 부호화하는 과정 지향적 의미로 규정된다. 이 표현은 사건의 전개와 경과 그 자체를 의미 구성의 중심에 두며, 목표의 달성 여부나 수단 및 문턱의 통과는 의미의 핵심으로 부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經過’는 사건을 결과 중심으로 조직하기보다는, 주체가 어떠한 경로와 시간적 흐름을 따라 사건을 경험했는지를 서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인지의미적 특성은 ‘經過’가 ‘通過’와 달리 방식이나 매개를 도입하는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2언어 학습자에게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경로-방식 혼동 오류를 사건 구성 방식과 참조 관점의 차이라는 인지 차원에서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2) ‘通過’의 핵심 인지의미적 특성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볼 때, ‘通過’는 사건의 발생이나 전개 과정을 단순히 서술하는 표현이 아니라 주체가 특정한 방식이나 조건을 매개로 하나의

기준이나 문턱을 통과함으로써 목표를 실현하는 결과 지향적 사건 구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경로의 전개와 과정적 경험을 중심으로 의미를 조직하는 '經過'와 달리, '通過'의 의미 초점은 분명히 결과의 달성에 놓여 있으며, 이는 기준 충족과 완료를 전제하는 결과 지향적 사건 이해 방식을 반영한다.

Talmy(2000)의 운동 사건 틀에서 볼 때, '通過'는 연속적인 경로 이동보다는 경계(boundary) 또는 문턱(threshold)의 통과에 초점을 두는 인지 유형에 가깝다. 여기서 문턱은 물리적 장애물에 국한되지 않고, '考試', '審批', '面試', '討論'과 같이 추상적 기준이나 조건을 포함한다. '通過'를 사용할 때 화자는 이러한 요소를 반드시 충족되거나 넘어야 할 기준으로 개념화하며 그 기준을 통과하는 순간 사건의 상태가 변화하거나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인식한다. 예컨대 '通過考試', '通過審批'와 같은 표현은 단순한 과정의 기술을 넘어, 자격 취득이나 허가 획득과 같은 결과적 의미를 함축한다. 이처럼 '通過'는 의미 자체에 성공적 완결과 기준 달성에 대한 전제를 포함한다.

의미 기능 측면에서 볼 때, '通過'는 주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방식 및 조건을 도입하는 데 사용되며, 사건이 어떻게 달성되는가에 초점을 둔다. '通過努力取得成功', '通過溝通解決問題' 등의 예에서 '努力'과 '溝通'은 주체가 거쳐 간 경로나 경험이 아니라 결과를 산출하는 매개 요인으로 기능한다. 이는 '通過'가 사건의 시간적 연속성보다는 인과 구조 속에서의 매개 지점에 주의를 집중하는 표현임을 보여준다.

HSK 작문 말뭉치에서 관찰되는 학습자의 오용 사례는 이러한 인지적 특성을 드러낸다. 예문 (13)-(20)에서 보듯이, '三年的籃球鍛煉', '痛苦', '戰爭', '再三思考'와 같은 성분들은 본질적으로 주체가 시간이나 사건 전개 속에서 겪는 과정적 경험을 지시하며, 통과해야 할 기준이나 문턱으로 개념화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학습자들은 '通過'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적 경험을 결과 달성의 기준으로 재개념화하며, 그 결과 과정적 경험과 결과 지향적 사건 구성 사이의 의미 경계가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공간 참조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通過'는 Levinson(1996)이 제시한 객

체 중심 참조계와 밀접하게 결합된다. 이 참조계에서는 사건의 조직이 주체의 이동 경로나 체험이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객체, 제도 또는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通過隧道’, ‘通過法律’, ‘通過面試’ 등에서 보듯이, 참조 대상은 주체와 독립적으로 설정되며 주체의 행위는 해당 대상에 대한 충족 또는 통과 행위로 해석된다. 이는 사건의 인지적 초점이 주체의 체험보다는 외부 기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通過’는 결합 대상에 있어서도 비교적 강한 의미적 선택 제약을 지니며, 주로 방식성, 제도성 및 결과 지향적 명사와 결합하고 순수한 경로 또는 시간 과정 명사와는 부적합하다. 중국어 제2언어 습득 과정에서 학습자가 이러한 결과 지향적 특성을 안정적으로 구분하지 못할 경우, ‘通過’를 모든 ‘경험-완료’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과도하게 일반화하게 되고 그 결과 체계적인 혼용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通過’의 핵심 인지의미는 객체나 기준을 참조점으로 삼아 방식이나 조건을 매개로 주체가 하나의 문턱을 넘고 결과를 실현하는 사건 구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주체 —▶ 수단 —▶ 문턱/기준(Threshold) —▶ 결과

[도식 2] ‘通過’의 인지의미 구조

이러한 의미적 특성은 ‘通過’와 ‘經過’이 인지 기능 차원에서 구별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通過’는 주체가 특정한 수단이나 조건을 매개로 기준이나 문턱을 통과함으로써 사건을 완료하는 결과 지향적 사건 구성을 핵심 의미로 하며, 사건의 전개 과정 자체보다 목표가 어떤 방식이나 조건을 통해 달성되는가에 의미 초점을 둔다. 이는 Talmy(2000)의 경계와 문턱 통과형 사건 구성에 대응하고 Levinson(1996)이 말한 객체 중심 참조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인지적 특성으로 인해 ‘通過’는 수단와 제도성 명사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반면, 순수한 경로나 시간 과정 명사와는 결합 제약을 보이며, 이 구분이 불안정할 경우 제2언어 학습자에게서 체계적인 혼용 오류가 발생한다.

다. 앞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經過'와 '通過'의 핵심 인지의미를 주요 차이점을 정리하여 <표 1>에 제시한다.

<표 1> '經過'와 '通過'의 핵심 인지의미 비교

요소	經過	通過
핵심 의미	경로/과정	수단/문턱
의미 초점	경험과 과정의 전개	결과의 달성
결과 강조	강조하지 않음	명확히 강조함
참조 방식	자기중심 참조계	객체 중심 참조계
오류 양상	'방식'으로 과도하게 일반화	'경로'로 과도하게 일반화

<표 1>은 핵심 의미, 사건의 초점 및 참조 방식이라는 인지적 차원을 중심으로 '經過'와 '通過'를 대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經過'는 경로와 과정을 중심 의미로 하여 사건의 시간적과 공간적 전개 양상을 부각시키는 반면, 결과의 실현 여부를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通過'는 수단이나 문턱의 통과를 핵심 의미로 삼아, 주체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강조하는 결과 지향적 어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토대로 HSK 학습자들이 '經過/通過' 사용에서 보이는 체계적인 혼용 오류 역시 보다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말뭉치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經過'의 경로와 시간 과정 의미와 '通過'의 방식, 수단 및 문턱 의미를 충분히 분화하지 못한 채 두 어휘를 모두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거치는 과정적 조건'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 인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조건을 표현해야 할 맥락에서는 경로 중심 어휘인 '經過'를 오용하고, 반대로 순수한 경로, 시간 과정 표현에서는 결과 지향성이 강한 '通過'를 사용하는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인지적 측면에서 보면 '經過'는 사건이 주체를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 축을 따라 전개되는 경로 인지 패턴을 활성화하는 반면, '通過'는 객체나 기준을 중심으로 조건 충족과 상태 전환을 판단하는 방식-문턱 인지 패턴을 활성화한다. 중국어 습득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이러한 두 사건 구성 방식을 심리 표상

차원에서 명확히 분화하지 못하고, 이를 하나의 일반화된 ‘경험-달성’ 사건 도식으로 통합함으로써 어휘 선택에서 체계적인 오류를 산출하게 된다.

5. 나가며

본 연구는 HSK 작문 말뭉치를 기반으로 중국어 학습자가 산출한 ‘經過’ 관련 오류 양상을 분석한 뒤, 그 발생 원인을 의미 및 사건 구성 차원에서 해석하였다. 또한 오류 분석의 설명 틀로 인지의미론적 관점을 도입하여 ‘經過/通過’가 사건 구성에서 수행하는 기능적 분화 양상과 두 표현의 혼용 기제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經過’ 관련 오류는 개별 학습자의 우발적 실수라기보다 비교적 규칙적인 유형 분포와 반복 가능한 인지적 동인에 기반한 체계적 오류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류는 표면적으로는 유의어 혼용이나 결합 제약의 위반으로 관찰되지만 이면에는 ‘經過’의 핵심 의미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와 사건 구조의 부적절한 재구성을 확인하였다.

오류 유형의 분포를 종합해 보면 학습자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經過’와 ‘通過’의 혼용이며 높은 빈도와 일관된 사용 패턴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수단이나 매개, 조건을 도입해야 하는 맥락에서 ‘經過’를 선택하는 오류와, 경험의 전개나 시간의 경과를 표현해야 하는 맥락에서 ‘通過’를 선택하는 오류가 모두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비해 ‘經過’와 ‘經歷’, ‘度過’, ‘過去’, ‘有過’, ‘使用’ 등과의 혼용은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일정한 유형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이들 오류는 특정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기보다는, 인접 의미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개별적 혼동 사례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는 핵심 오류 유형이라기보다 주변적 의미 혼동에 해당하는 부차적 오류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혼용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인지의미 관점에서 ‘經過’와 ‘通過’의 사건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Talmy의 운동 사건 틀에 따르면 ‘經過’

는 경로와 시간적 과정을 활성화하여 사건이 시간 공간 축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부각시키며 결과의 실현 여부를 핵심 초점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반면 '通過'는 수단의 매개나 문턱의 통과를 활성화하여 주체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상태 변화나 목표 달성을 이루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조직하며 흔히 성공이나 기준 충족과 같은 결과 전제를 수반한다.

이러한 차이는 Levinson의 공간 참조계 이론에서 말하는 참조 기준의 설정 방식과도 연결된다. '經過'는 주체의 이동이나 체험을 기준으로 사건을 조직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通過'는 외부의 대상, 제도, 기준을 참조점으로 삼아 사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과 결합된다. 이처럼 인지적 초점과 참조 기준의 차이는 두 어휘가 결합 대상, 의미 제약, 화용적 추론에서 서로 다른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근거가 되며, 중국어 학습자의 어휘 선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혼용 양상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어 교육에서 '經過'와 '通過'의 차이를 기존의 유의어 대치 중심 설명을 넘어 사건을 경로와 과정 중심으로 인식할 것인지, 수단과 문턱 중심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인지적 선택의 문제로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분석 결과 두 어휘의 혼용 오류는 단순한 어휘 지식 부족이 아니라 사건 구조에서 의미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교수 현장에서는 의미 목록식 설명보다는 사건 구조 대비를 통해 전형적인 결합 양상과 사용 제약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학습자가 '經過'와 '通過'를 개별 어휘가 아니라 상이한 사건 개념화 방식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도록 도와 의미와 통사 간의 안정적인 연결을 형성하게 하며, 중국어 동사 및 전치사 사용 오류 연구와 어휘 교수 학습에 인지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曹起, 「試論“經(經過)”的詞性」, 『渤海大學學報』 第1期, 2007.
- 方清明, 「也論“經過”的詞性——兼與曹起先生商榷」, 『渤海大學學報』 1期, 2008.
- 何立榮, 「淺析留學生寫作中的篇章失誤」, 『漢語學習』 1期, 1999.
- 侯民吉, 「二語習得研究中的對比分析、錯誤分析和中介語理論」, 『吉首大學學報(社會科學版)』 3期, 2011.
- 侯學超, 『現代漢語虛詞詞典』,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1980.
- 黎運漢, 『漢語風格學』, 廣州: 廣東教育出版社, 2000.
- 劉曉曦·任海波, 「“經過”和“通過”的比較分析」, 『連雲港職業技術學院學報』 1期, 2008.
- 李冰冰, 「“通過”和“經過”的語義表達功能辨析——兼談對外漢語介詞教學」, 『赤峰學院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第12期, 2014.
- 馬貝加, 「介詞“經”的產生與發展」, 『溫州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期, 1999.
- 屈哨兵, 「“經過/經 + VP”結構的受動特性和語用勢能」, 『語言科學』 第3期, 2004.
- 陶文娟, 「試論“經過”的語法化及其機制」, 『文教資料』 第33期, 2011.
- 王自強, 『現代漢語虛詞用法詞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4.
- 辛平, 「對11篇留學生漢語作文中偏誤的統計分析及對漢語寫作課教學的思考」, 『漢語學習』 第4期, 2001.
- 俞士泣, 『現代漢語語法信息詞典詳解』,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1998.
- 鄭超, 「“通過”和“經過”的辨析」, 『遼寧教育行政學院學報』 第1期, 2008.
- 趙春利·石定栩, 「港澳中文與標準中文“經”字句比較研究」, 『雲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1期, 2015.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第7版), 北京: 商務印書館, 2016.
- Brown, H. D.,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York:

- Pearson Education, 2000.
- Brown, H. D.,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2007.
- Corder, S. P., "Idiosyncratic Dialects and Error Analysis," in *New Frontier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1974.
- Corder, S. P.,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Vol. 5, No. 4, 1967, pp. 161-170.
- Ellis, R.,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James, C., *Errors in Language Learning and Use: Exploring Error Analysis*, London: Longman, 1998.
- Levinson, Stephen C. & Wilkins, David P., *Grammars of Space: Explorations in Cognitive Divers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Levinson, Stephen C., "Frames of Reference and Molyneux's Question: Crosslinguistic Evidence," in P. Bloom et al. (eds.), *Language and Space*, Cambridge, MA: MIT Press, 1996, pp. 109-169.
- Talmy, Leonard, "Lexicalization Patterns: Semantic Structure in Lexical Forms,"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p. 57-149.
- Talmy, Leonard,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II: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Cambridge, MA: MIT Press, 2000.

Abstract

An Error Analysis of Learners' Use of Jingguo (‘經過’) in the HSK Writing Corpus

Chen Huanchang

This study investigates errors in the use of jingguo (經過) produced by learners of Chinese as a second language based on the HSK writing corpus, examining their cognitive-semantic motivations. The results show that such errors are systematic rather than incidental, with confusion between jingguo and tongguo (通過) emerging as the most prominent type: learners tend to use jingguo in contexts requiring means or conditions for result attainment, and tongguo in contexts describing path progression or temporal processes. To account for these patterns, this study adopts Talmy's Motion Event Framework and Levinson's theory of Frames of Reference, revealing that jingguo encodes a process-oriented meaning foregrounding paths and temporal progression, whereas tongguo conveys a result-oriented meaning highlighting goal attainment through means mediation or threshold cross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learners' confusion stems not from a simple lack of lexical knowledge, but from a cognitive conflation of path-based and means-based event representations, and thus offer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Chinese vocabulary instruction emphasizing event-structure distinctions.

Key words : jingguo; tongguo; HSK writing corpus;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ognitive semantics; error analysis

투 고 일 : 2026. 1. 10. / 심 사 일 : 2026. 1. 15.~ 2026. 2. 15. / 게재확정일 : 2026. 2. 20.